

# 컵스, WS 6차전 완승... 승부는 7차전으로

### 중심타선 '대폭발' 9-3으로 승리... 오늘 마지막 승부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한 시카고 컵스가 월드시리즈 6차전까지 잡으면서 승부를 7차전까지 몰고갔다.

컵스는 2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 열린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의 2016 메이저 리그(MLB) 포스트시즌 월드시리즈(7전4선 승제) 6차전에서 중심타선의 대폭발을 앞세워 9-3으로 승리했다.

1승1패로 맞선 상황에서 3. 4차전을 내리쳐 벼랑 끝에 몰렸던 컵스는 지난달 31일 홈에서 열린 5차전에서 3-2로 승리하며 기사회생했고, 적지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가 승부를 7차전으로 몰고 갔다.

1945년 이후 71년 만에 월드시리즈에 나서 1908년 이후 108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는 컵스는 저력을 과시하면서 염소의 저주를 꺾 희망을 이어갔다.

3승1패까지 앞서며 '와우 추장의 저주'를 풀 기회를 잡았던 클리블랜드는 2연패를 당하면서 1948년 이후 68년 만에 월드시리즈 우승을 위해 컵스와 '외나무 다리 승부'를 벌이게 됐다.

월드시리즈 3~5차전에서 그다지 힘을 쓰지 못하던 중심타선이 힘을 냈다.

5차전에서 동점 솔로포를 때려낸 크리스 브라이언트는 1회초 선제 솔로포를 쏘아

올리는 등 5타수 4안타 1타점 2득점으로 팽펄 날았다.

4번타자 앤서니 리조는 9회 3루수 루터를 때려낸 것을 포함해 5타수 3안타 2타점 3득점으로 맹타를 휘둘렀고, 7번타자로 나선 에디슨 러셀은 3회 만루포를 작렬하는 등 5타수 2안타로 6타점을 쓸어들었다.

타선 지원을 등에 업은 컵스 선발 제이크 아리아타는 5%이닝 3피안타(1홈런) 2실점을 기록하고 승리투수가 됐다.

1회초 2사 후 브라이언트가 좌중월 솔로포를 쏘아올려 기선을 제압한 컵스는 리조, 벤 조브리스트의 연속 안타로 일군 1사 만루의 찬스에서 러셀이 가운데 담장을 넘기는 그랜드슬램을 쏘아올려 7-0으로 점수차를 벌였다.

컵스는 3회 카일 슈와버의 볼넷과 리조, 조브리스트의 연속 안타로 일군 1사 만루의 찬스에서 러셀이 가운데 담장을 넘기는 그랜드슬램을 쏘아올려 7-0으로 점수차를 벌였다.

클리블랜드는 4회말 1사 2루에서 마이크 나폴리가 중전 적시타를 뽑아내 1점을 만회했고, 5회 제이슨 킵니스가 좌월 솔로아치를 그려내 2-7로 추격했다.

컵스는 마무리 투수 아블리스 채프먼을 일찌감치 마운드에 올렸다.

채프먼은 프란시스코 린도어를 비디오



시카고 컵스의 에디슨 러셀이 2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 열린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의 2016 메이저리그(MLB) 포스트시즌 월드시리즈(7전4선 승제) 6차전에서 3회초 만루포를 때려낸 후 동료들과 기뻐하고 있다.

판독 끝에 1루수 앞 땅볼로 잡아내며 실점을 막았다. 채프먼은 8회 1사 후 호세 라미레스에게 안타를 맞았지만, 안 콤스에게 병살타를 유도해 이닝을 끝냈다.

마운드가 무실점 피칭을 이어주자 타선도 9회 다시 힘을 냈다.

컵스는 9회 2사 후 브라이언트가 안타를 때려내 만들어진 2사 1루에서 리조가 우월

투런 홈런을 직렬 9-2로 달아내며 사실상 승부를 갈랐다.

클리블랜드 선발 조시 톨린은 2%이닝 6피안타(1홈런) 6실점으로 무너져 패전의 명예를 썼다.

한편 컵스와 클리블랜드의 월드시리즈 7차전은 오늘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김민근기자

## 한국야구, U-23 세계선수권 조 2위로 예선 통과

한국 야구가 23세 이하 세계선수권대회 예선에서 4승1패를 기록해 조 2위로 예선을 통과했다.

장재근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 한국 야구 대표팀은 2일 멕시코 살티요에서 열린 U-23 세계선수권대회 예선 A조 5차전에서 파나마에 4-5로 패했다.

나란히 4연승을 달리던 파나마에 진 한국은 예선 전적 4승1패를 기록, 조 2위로 슈퍼라운드(2라운드)에 진출했다.

2회초 이태훈(홍익대)의 2루타와 김태진(NC 다이노스)의 적시타를 엮어 선취점을 뽑은 한국은 2회말 파나마에 솔로포를 허용했다.

파나마와 1-1로 팽팽히 맞서던 한국은 8회 이태훈이 우월 투런포를 쏘아올려 3-1로 리드를 잡았다.

9회에도 한국은 정현(kt 위즈)의 안타와 임병욱(넥센 히어로즈)의 우중간 적시 2루타로 1점을 더했다.

한국은 8회 2사 후 마운드에 오른 변진수(경찰청)가 9회에 무너졌다. 실책으로 선두타자의 출루를 허용한 변진수는 연속 4안타를 맞고 4실점에 패전의 명예를 썼다.

이날 선발 등판한 최재홍(한양대)은 7%이닝 동안 삼진 8개를 쏴내며 6피안타(1홈런) 1실점으로 호투했지만, 팀 패배에 빛이 비쳤다.

한국은 하루 휴식을 취한 후 4일 B조 1위 일본과 슈퍼라운드 조별예선 1차전을 치른다.

/김민근기자

## 맨시티, 챔피언스리그 바르셀로나에 설욕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가 FC바르셀로나(스페인)를 무너뜨렸다.

맨시티는 2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 이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6~2017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C조 4차전에서 바르셀로나를 3-1로 이겼다.

지난달 20일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0-4로 대패한 맨시티는 안방에서 설욕에 성공했다. 2승1무1패(승점 7)로 조 2위다.

지난 여름 맨시티 사령탑으로 부임한 펠 프라데올라 감독은 친정팀을 상대로 첫 승을 챙겼다.

선제골은 바르셀로나가 가져갔다.

전반 21분 리오넬 메시가 맨시티의 골문을 열었다.

메시는 네이메르의 패스를 받아 왼발슛으로 득점에 성공했다. 바르셀로나의 공세에 시달리던 맨시티는 전반 30분 일카이 퀴도건의 골로 균형을 맞췄다.

라힘 스틸링의 크로스를 퀴도건이 침착하게 마무리했다.

잘 막아내던 바르셀로나는 수비 실수로 동점골을 허용했다.

분위기를 바꾼 맨시티는 후반 6분 역전에 성공했다.

케빈 데 브루인의 발끝이 번쩍였다.

페넬티 에어리어 정면에서 얻어낸 프리킥을 감아치기로 연결했다.

바르셀로나는 후반 24분 안드레 고펬스의 슛이 골대를 때리는 등 동점골 사냥에 애를 먹었다. 오히려 후반 28분 퀴도건에게 세 번째 골을 내줘 무너졌다.

4연승이 무산된 바르셀로나는 3승1패(승점 9)로 여전히 1위를 지켰다.

지난 대회 준우승팀인 D조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는 FC로소토프(러시아)를 2-1로 격파하고 4연승을 질주했다. 같은 조의 바이에른 뮌헨은 PSV 아인트호벤(네덜란드)의 추격을 2-1로 따돌렸다.

A조의 아스날은 PFC 루도고레츠(불가리아)를 3-2로 꺾고 17년 연속 16강 진출을 확정했다.

/김민근기자

# LPGA- JLPGA 주최 '토토 재팬 클래식' 상금왕 경쟁자 총출동

### 시즌 막바지 각종 타이틀 놓고 경쟁자 명승부 예고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와 일본 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가 시즌 막바지로 접어들어 가운데 일본에서 열리는 '토토 재팬 클래식'에 상금왕 경쟁자들이 총출동한다.

4일부터 사흘간 일본 아바라키현 다이헤이요 클럽 미노리 코스(파72·6500야드)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LPGA와 JLPGA가 공동 주최한다.

대회에서 획득한 상금이나 각종 기록 등은 LPGA 투어뿐 아니라 JLPGA에도 적용된다.

특히 양 투어 모두 올 시즌 잔여 대회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상금왕을 비롯한 각종 타이틀을 놓고 경쟁자들 간에 명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우선 세계여자골프 1위 리디아 고(뉴질랜드)와 2위 에리아 쥘타누간(태국)이 상금왕과 올해의 선수 등을 놓고 진접 승부를 벌인다.

올 시즌 4승의 리디아 고는 상금 순위 1위(245만1642달러)를 달리고 있지만 5승을 거둔 쥘타누간(244만7898달러)에 5000

달러도 채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번 대회에는 150만 달러의 총상금이 걸려 있다. 쥘타누간이 20위 이내 들고 리디아 고가 30위권 밖으로 밀려나면 상금 순위가 뒤바뀔다.

상금왕 못지않게 올해의 선수 경쟁도 치열하다. 올해의 선수 포인트에서는 쥘타누간(260점)이 리디아 고(247점)에 앞서 있다.

우승자에게는 30포인트가 주어지는 반면 10위 밖으로 밀려나면 점수를 받지 못한다. 이번 대회를 통해 얼마든지 순위가 뒤바뀔 수 있다.

JLPGA 투어에서는 동갑내기 골퍼 이보미(28·혼마골프)와 신지애(28·스리본드)의 상금왕 경쟁도 볼 만 하다.

지난해 JLPGA 투어 상금왕을 차지한 이보미는 2년 연속 상금왕을 향해 질주 중인 가운데 신지애가 첫 상금왕에 도전한다.

이보미는 현재 1위(1억5477만 엔)를 달리고 있지만 신지애가 지난주 미쓰비시 전기 레이디스 대회에서 시즌 3승째를



JLPGA 투어에서는 동갑내기 골퍼 이보미(28·혼마골프)(왼쪽)와 신지애(28·스리본드)의 상금왕 경쟁도 볼 만 하다.



거두며 상금 랭킹 2위(1억2032만 엔)로 올라섰다.

불의 차이는 2545만 엔에 불과하다. 이번 대회 우승자는 2300만 엔 가량의 상금을 거머쥘 수 있어 이보미는 굳이기를, 신지애는 턱밑 추격을 노린다.

지난달 21일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KB금융스타 챔피언십 2라운드에서 허리 부상으로 대회를 중도에 포기했던 전진지(22·하이트진로)도 이번 대회를 통해 복귀한다.

/김민근기자

## 위대한 체 · 인 · 지의 시작

#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